

● 사랑, 고통, 사랑

사랑, 고통, 사랑. 이것이 오늘 강론의 주제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고통이 오고, 다시 사랑으로 끝납니다.

제 1독서는 도전적입니다: 사무엘은 사랑으로 불려지고,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독서 안에서 6가지 점을 생각해 봅시다.

- 첫째,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있었는데”(1 사무3:3).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밀함을 봅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밤새도록 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몇번인가, 청소년 피정때, 우리는 캐빈안에 성합을 설치해서 장식하고, 몇몇 젊은이들이 교대로 성합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정말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도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뤄질 것입니다.
- 둘째,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하고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3:4). 그분은 힘이 아닌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https://thesacredpagearchive.blogspot.com/2018/01/the-personal-god-who-calls-us-by-name.html>). 나는 룩 스카이워커가 *The Mandalorian*로 돌아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강력하고, 겸손하며, 선함으로, 예의바른 사람들과 마주하며 “힘이 함께하기를.”라고 하며 끝낸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Goodbye’란 단어가 ‘God be with you’(하느님이 당신과 함께)의 축약어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 셋째, “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3:5).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이 패턴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 넷째,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3:8-9).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근본적인 기질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 해야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하는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진정으로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되, 어느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더 강한 믿음의 방법은 “예수님,
힘든 것이라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입니다.
- 다섯째, 고통. 사무엘이 듣고 난 뒤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거슬러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엘리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 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3:11-13). 사무엘은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대문을 열었으나, 엘리에게 환시에 관하여 알리기가 두려웠다. 그때 엘리가 ‘내 아들 사무엘아...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3:15-18).

- 여섯째,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엘리는 성숙하여 진리를 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정벌의 예언을 듣고,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3:18).

사랑, 고통, 사랑.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와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때때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 제1 독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나는 쓰기 쉽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 부드럽고 솜털같은 강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 그때 나는 한 신부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내 자료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학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질지도 모르니, 나는 이 사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지를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무슨일이 있었는 지 아세요? 그는 학대자였어요! 우리 교회인 가톨릭 교회는 이 거대한 문제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나의 사기를 떨어뜨렸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 배런 주교는 오늘 독서에 대해 “지난 몇 십년 동안, 우리는 성직자,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성직자들이 사무실을 남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감독관들, 주교들, 모두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https://www.wordonfire.org/resources/homily/the-call-of-samuel/21629/>).

-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명 높은 성직자 학대자인, 전 맥캐릭 추기경과 그가 어떻게 승진하고 다른 주교들에 의해 어떻게 보호 받았는 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바티칸의 보고서가 2020년 11월 10일에 발표되었을 때, 그 안에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솔직하지 않았습니 다. 요약본에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그가 어떻게 보호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황청 일부 부서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교황청 외교 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Page 3

http://www.vatican.va/resources/resources_rapporto-card-mccarrick_20201110_en.pdf). 둘째로,

“보고서는 왜.. 세명의 미국 주교들이 젊은 남성들과 함께 자는 것이, 최소한, 심각한 부적절함과 경솔함의 표시로 여기지 않는 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정통한 교황청 관리들이 왜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지도 알 수

없습니다(<https://www.catholicculture.org/news/headlines/index.cfm?storyid=48630>). 셋째,

“맥캐리의 성적 약탈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보고서의 주장인 사실은 -모두 본문에 공개된 바 있다는 - 변호사의 차별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설명서는 없을 지라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https://www.catholicculture.org/commentary/mccarrick-report-cover-up-continues/?repos=6&sub>

[repos=0&searchid=2079437](https://www.catholicculture.org/commentary/mccarrick-report-cover-up-continues/?repos=0&searchid=2079437)).

바론 주교는 “ 지금까지 누가 사무엘을 양육하고 있으며, 누가 그 예언적인 목소리로 말할 것이며, 아마도 그/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해답은 우리 모두입니다.

8년전, 저는 교회안에서의 대화에 관한 자격증 논문(고통의77페이지!)을 썼는데, 이 논문은 12억 인구의 교회 가족에게 필요한, 교회 법 체계인 캐논 법전 212에 있습니다. 캐논 212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권장하는 두 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 신자들은 교회의 사제들에게 그들의 필요, 특히 영적인 것, 그들의 욕망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다”(캐논 212조 2항).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보다 명확한 것을 원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에 속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더 많은 투명성과 더 솔직한 설명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 저에게 이것이 허용됩니다.
- 또한 캐논212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위신에 따르면, 그들은 교회의 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성스러운 목회자에게 표명할 권리와 심지어 때때로 그들의 의견을 성실한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편견 없이 알릴 의무가 있다”(캐논 212조 3항)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구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말한 사실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이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전례를 잘 아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학대를 본다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성이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정의된 믿음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가 들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혼란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법에 대해 할 말이 더 많지만, 지금은, 교회안의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이것이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해 더 개방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한 세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기 자신의 죄부터 고치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더 많이 말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먼저 고백성사를 보십시오. 배우자나 저, 또는

밀러 대주교에게 어려운 진실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십시오.

- 5주 후인 2월 18일, 우리는 낙태의 종식을 기원하며 ‘삶을 위한 40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먼저 우리자신의 죄를 바로잡고, 그런 다음 교회에서 죄를 바로잡도록 노력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때,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 먼저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엘리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자비로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을 때 하느님의 축복, 시기, 그리고 결실을 부탁하는 것을 뜻합니다.
- 3) 저는 20년 전 이냐시오 로올라 성인의 무언가를 읽었고, 이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교정을]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누구의)사랑이며, 이 사랑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된 교정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Ignatius of Loyola: Spiritual Exercises and Selected Works*, ed. George Ganss, SJ, 354-355).

- 가족 중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인식됩니까? 만약 우리가 낙태에 반대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사랑이 인식됩니까?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를 사랑합니다. 제가 성당에서 비판하는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왜 제 말을 듣지 않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 너의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라고 너를 보낸다.” 고통이 이것으로부터 오겠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끝날 것입니다. 엘리의 잘못을 바로 잡을때, 그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느님께서서 우리 교구 가족이 진실을
이야기하는것에 대해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매우 기쁩니다!
어려운 진실이 거짓말보다 더 낫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사랑, 고통, 사랑.**